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2.2.(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전 7시 30분 SBS FM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장관은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온병원에서 열리는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찾아가는 북스토리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개최 후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관은 2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 부산 온병원에서 열리는 북한이탈주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2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리는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을 활용한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참석합니다.

다음은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관련 안내입니다.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오는 3월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본 대회는 국립통일교육원, 국가안보전

략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후원합니다.

본 대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으로 이루어져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야별 우승자 및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포상 등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전 중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실포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기사는 제가 몇 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한 거는 공식매체 보도 기준 혹시 몇 번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언급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핵 잠수함 개발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오늘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통 보도를 통해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당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선박 공업 부문에서 합선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할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식의 행보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남포 조선소를 방문하여 또다시 전쟁 준비를 운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북한당국은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오늘 장관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노림수는 우리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한반도를 상시적인 군사 분쟁 지역화한다는 것의 어떤 의도라든지, 무엇을 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혹시 통일부가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 북한의 의도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일상화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서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